

마음 다루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 라마나 마하르시 | 박지명 옮김 |

우리에게 경험이 일어나는 근본에는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마음의 분리가 있고, 그 위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나’ 그리고 너

한 수행자가 스리 바가반에게 자신을 깨닫는 법에 대해 물었다. 바가반은 평상시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이 몇 번 오간 후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대신 ‘너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마음은 구루 guru나 스승, 그리고 신의 모습인 ‘너’라는 의미에 고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바가반은 “너의 질문이 어떤 것이든 결국 너 자신인 ‘나’에 귀결된다. 이 모든 구분은 나와 너, 스승과 제자 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결국 단순한 무지의 소치이다. 결국은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 자신을 현혹하는 것이다”라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성자 리부Ribhu와 제자 니다가Nidagha의 이야기는 교훈적이다. 스승인 리부는 제자 니다가에게 ‘둘이 아닌 하나’인 브라만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니다가는 박식하고 이해력이 있음에도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로 확신하지 못했으며, 즈다나의 지혜에 이르는 수행을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따르며 현신적으로 살았다.

제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그를 사랑했던 스승은 제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스승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니다가 옆으로 다가갔다. 리부는 니다가에게 “왕이로군요! 그가 행렬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있지요?” 하고 물었다.

“저기 코끼리 위에 있지요” 하고 니다가가 말했다.

“왕이 코끼리 위에 있다고요? 네, 보이네요. 하지만 누가 왕이고, 누

가 코끼리입니까?”

리부가 다시 묻자 니다가는 “뭐요?” 하고 소리쳤다.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고 아래의 짐승이 코끼리란 것도 모른단 말이오? 당신과 같은 사람과 이야기하다니!”

“나 같은 무식한 사람에게 너무 화내지 마시오.”하고 어수룩한 사람으로 변장한 스승이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위’와 ‘아래’란 무엇입니까?”

니다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왕과 코끼리를 보면 하나는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밑에 있지 않소! 이제 와서는 위아래가 뭔지 알고 싶다고요?”

니다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 행동으로 가르쳐줘야겠군요. 옆드리시오. 잘 알게 해드리지.”라고 말하고 옆드린 스승의 어깨 위로 올라탔다.

“나는 왕처럼 위에 있고 당신은 코끼리처럼 아래에 있소. 이제 알겠소?”하고 니다가는 말했다.

스승은 “아니요. 아직……”하고 조용히 대답하고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왕처럼 위에 있고 나는 코끼리처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뭐고 나는 뭐요?”

여기에서 니다가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너’와 ‘나’의 구분이라는 갑작스럽고 큰 문제가 그의 마음을 밝혀준 것이다. 그는 즉시 스승의 어깨에서 내려와 스승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의 스승이 아니라면 어찌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밝혀 외형적인 물질의 존재로부터 나의 진정한 실체를 깨우치게 하겠습니까? 아,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당신의 축복을 바랍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청소하는 여인 우마데비Umadevi는 카슈미르Kashmir를 여행하고 몇 장의 사진을 가져와 응접실에 모인 손님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바가반이 우스개로 말했다.

“우리는 여행을 하지 않고도 그런 곳에 갈 수 있다.”

그러자 한 수행자가 말했다.

“저는 카일라스로 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바가반은 “인간에게 운이 닿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닿지 않으면 모든 곳을 가보았다고 해도 아직 더 갈 곳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어느 곳은 물론이고 다른 별이라도 말이다. 지식이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무지가 되고 만다.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이다”라고 말하고는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파르는 늙고 쇠약했지만 카일라스 여행을 시작했다. 가던 중 또 다른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그곳까지의 여행은 쉬운 것이 아니라며 아파르를 말렸다. 아파르는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좋으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아파르에게 강에 가서 몸을 담가보라고 했다. 아파르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카일라스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있던 곳은 탄조레Tanjore에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티루바야르Tiruvayyar였다. 그럼 카일라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마음 밖에 있는 것일까? 만일 티루바야르가 정말 카일라스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파르뿐이었다.

비슷한 경우가 남쪽 지방에서도 있었다. 시바가 사는 곳을 순례하려 했던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시바 신을 본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의존하지 마라

외아들을 갑자기 잃고 비탄에 빠진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바가반을 찾아왔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바가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바가반은 언제나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통해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가반은 비차라 사가람Vichara Sagaram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청년이 있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외국에 나가 좀 더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 오겠다고 말하고 부모님 곁을 떠났다. 외국에서 한 청년은 공부도 많이 하고 큰돈도 벌어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불행히도 다른 한 명은 죽고 말았다. 성공한 청년은 고향으로 가는 상인에게 자신은 잘 살고 있으며 같이 왔던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 부모님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상인이 실수로 잘 살고 있는 아들의 부모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전하고, 죽은 아들의 부모에게는 아들이 큰돈을 벌어 잘 살고 있으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아들이 죽은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잘 살고 있으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했고, 실제로 잘 살고 있는 아들의 부모는 슬픔에 빠졌다. 사실 그들 중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이 받은 소식이 그들을 울고 웃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비

슷한 경우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그대로 믿고 혼혹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만일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간파한다면 외부세계의 사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끝) 

- 이 글은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라마나 마하르시**Sri Ramana Maharshi |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그는 인도의 힌두 철학자이자 요가 수행자다. 1879년 12월 30일 인도 남부 마드拉斯 마두라이의 종류 총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벤카타라만Venkataraman이었다. 17세 때 그는 평범한 소년에서 성자로 만드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된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를 심하게 느꼈고, 그는 죽음의 탐구를 생생히 하기 위해 시체처럼 몸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런 경험 후 참나Self 속으로의 몰입이 지속되었고 그는 아루나찰라 산으로 올라가 지냈다. 주변에는 상당한 수의 제자가 모여들었고 지금의 라마나스라마RamanaSramam이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난 야르Nan Yar, 타밀어로 '나는 누구인가?'로 나의 근원을 직시하게 하고, 진솔하게 근원을 받아들이는 헌신을 보여주었다. 에고의 존재를 온전히 비우기 위해 그가 사용한 수행법은 요가이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과 수용성을 지녔으며,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충만한 성인으로 유명하다. 그를 스리 바가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스리srī는 존칭어이고 바가반Bhagavan은 '전능한 신'이라는 뜻이다. 또한 라마나Ramana는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인 벤카타라만Venkatarama에서 따온 것으로 '참나에 머무는 자'를 의미하며, 마하르시Maharshi는 '위대한 성취자'를 뜻한다. 그와의 만남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에고의 사라짐과 참나의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침묵의 힘을 가졌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으면 해도 방황하던 마음은 고요해졌고,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영적체험이 일어났다.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는 침묵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해서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1950년 4월 14일 죽음의 고통도 발작의 징후도 보이지 않은 채 입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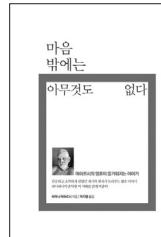
역자 | **박지영** | 산스크리트문화원 원장. 영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 명상을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인도 명상과 다르사한Darsahan 철학체계 및 산스크리트 경전을 공부하였다. 아드바이타 라자요가 켄드라Adavita Raja Yoga Kendra의 법맥을 이었으며 상카라차리야Shamkaracarya의 수행체계인 스리비드야 법통을 전수받았다. 인도의 스승 또는 구루와의 인연이 있어 그들에게 명상에 대한 비전들을 전수받았으며 수십 차례 인도와 히말라야를 다니며 많은 인도의 수행자들을 만나 그에 대한 지식들을 교류하였다. 현재는 서울 종로 경운동에 히말라야 명상센터를 세워 일반인들에게 가장 체계화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문화원을 세워 인도 고대 경전 및 명상과 요가, 자연요법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저서로 『스리마드 바가반드 기타』, 『요가 수트라』, 『우파니샤드』, 『양·한방,

자연요법 내 몸 건강백과》, 《건강 재테크》, 《베다》, 《산스크리트 반야심경》, 《명상교전-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나에게로 떠나는 인도명상여행》 등이 있다. 역서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요가》, 《자연요법백과》 등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담은 책 Good Book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하르시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이야기

라마나 마하르시 지음 | 박지명 옮김 | 물병자리 | 값 11,800원



세기의 현자, 라마나 마하르시가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하나가 혼탁한 이 시대를 맑게 비춘다!

자기 자신을 순례하라,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것이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라마나 마하르시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고 몸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우화가 담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출간되었다. 마하르시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변화시켜는 침묵의 힘을 가진 현자로 유명하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즉 참나Self에 대한 응시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수천 마리의 코끼리를 죽이는 능력이 아닌 발정난 코끼리 같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천 조각과 물주전자와 나무 지팡이 하나로 소박한 삶을 살았던 그가 열일곱 살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온 깊은 삼매의 삶에서 필터링이 된 이야기는 혼탁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각자의 영감으로 안내하는 맑고 청아한 피리소리가 되어준다. 진리를 찾아, 지혜를 찾아, 깨달음을 찾아, 진짜 성공을 찾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자신을 순례하라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알려주는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명상해보자. 이 모든 세계가 당신 안에 있다.